

남원 노암산단 3지구 분양 '가속'

저렴한 분양가·사통팔달 최적의 입지조건 강점

기업 속속 입주...올 연말까지 40%대 분양 무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시가 조성한 노암산단 3지구의 분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내실 있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분양 초기 투자협약을 완료한 친환경 화장품 기업 DFK, 플리브,

윈스킨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또 최근 ㈜하이코리아, 주식회사 수광 등 6개 기업이 잇따라 입주계약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올 연말까지 40%대의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규모 20만9141㎡ 규모로 완공된 노암산단 3지구는 분양

가 24만8000원(3.3㎡)으로 최근 분양중인 다른 지역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강점이다.

특히 2015년 상공회의소 선정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이기도 한 전주시는 순천완주고속도로와 광주대교고속도로 확장 등으로 내륙 및 항만물류 이용도 편리해 기업 물류비용 절감 등 내륙권 투자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남원시는 장기적인 투자유치 인프라구성을 위해 사마면 월평지구에 77만6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조성중이며, 남원의 투자환경 변화와 함께 기업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노암산단 3지구의 분양 완료시 5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500여원의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해 조기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기 기자 bs@kwangju.co.kr

고창 복분자단지 투자협약 잇따라 활성화 기대

티업·청파원 등 입주 협약

고창군이 조성한 복분자특화농공단지 투자협약이 잇따라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냉차 제조업체인 ㈜티업, 식초를 제조하는 농업법인 청파원 등 2개 기업과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에 있는 복분자단지 입주협약을 했다. 티업은 복분자단지 내 2만775㎡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완공 목표로 냉차 음료 제조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합성첨가물이 없이 생수로 차 본연의 맛을 우려내는 기술과 용기 제조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제품을 국내 유명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내년에 국외로 유통망을 확대해 연간 75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청파원은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복분자단지 2만3961㎡에 천연 발효식초 제조

공장을 짓는다.

이 농업법인은 소비자들이 식초 제조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시설을 설립해 식품제조와 문화·관광이 연계된 6차 산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창고구마사업단이 복분자단지 내 4300여㎡의 부지에 세척·가공·저온저장실을 갖춘 고구마 가공 공장을 짓는 등 5개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준비 중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최근 투자협약이 잇따르고 공장 가동을 준비 중인 기업이 5개에 달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공장 설립 등 투자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완공된 복분자단지는 분양 대상이 22개 블록에 14만㎡이며 이 중 10개 블록이 분양됐으며 나머지 12개 블록은 미분양 상태다.

/고창=고훈석 기자 ghs@kwangju.co.kr



겨울철 환경 정비

군산시 경암동사무소(동장 박식) 직원 및 주민단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근로자 등이 주요 대로변 대형화분과 화단, 철길마을 골목에 꽃배추 등을 식재하고, 불법 광고물과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군산시 제공>

'동학농민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다'展

정읍 동학혁명기념관서 기록물 전시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사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한 관련 기록물 전시회를 진행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다'라는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정읍시 동학로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기획전시는 세 파트로 구성됐으며, 첫 파트 '19세기 동아시아, 서세동점의 시대'에서는 서구열강이 식민지 확장을 위해 조선·청·일본의 개항을 압박하던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파트 '위기에 대처하는 조선·청·일본 삼국의 풍경'에서는 서구열강의 침략에 맞선 동아시아 삼국의 자주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셋째 파트는 '제국주의에 맞선 동학농민군'에서는 주권을 지키려는 동학농민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번 기획전시회의 주요 유품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이 제



무명 동학 농민군 위령탑

포되어 심문받은 기록인 '전봉준 공조(供摺)'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인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등이 있다.

동학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20일 "동학농민군의 반제국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계사적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고자 기획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이번엔 전주-김제 통합론 제기 주목

완주와 통합 무산 3년

강동화 시의원 주장

전주-완주 통합작업이 무산된 지 3년여 만에 전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전주-김제 통합을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시대를 맞아 전주시와 김제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제안한다"면서 "새만금 시대를 견인할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허브로서 성장해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로 전북도 내 14개 시군 중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서로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과 기술,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전주시와 도로,철도,항만, 항공 교통중심지로 새만금지구를 건 김제시와의 통합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전주와 김제의 통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제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 중 하나인 김제 화포 지역에 유리

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 의원은 "양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면 전북 혁신도시 역사 설립도 가능해져 현재 김제역에 정착하지 않는 KTX 고속열차를 김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지역 정치권에서 전주-김제 통합론을 주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김제시와 시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제시측은 새만금을 건 김제시가 입지적으로 좋은 여건 갖추고 있어 전주시와 통합할 때 상호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은 2013년 논의 거쳐 통합에 합의했으나 같은 해 6월 처리된 완주군 지역 유권자 중 55%가 반대하는 바람에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연합뉴스

"합리적 소비 배우러 오세요"

전북소비자연합, 중·고교 64곳서 '청소년 소비자교육'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64곳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소비와 고액 수당이나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에 청소년들이 휘말리는 일을 막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센터가 발표한 소비자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성년자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145건이었다. 피해 품목으로는 학습교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가방 22건, 이동전화 22건, 화장품

16건, 인터넷 교육서비스 9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청소년 소비자교육의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청소년 소비, 경제교육, 미성년자 보호법률 등이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물품 사기 예방법과 피해 구제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상술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스스로가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2. 나주시 신평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적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적75㎡ 점포26㎡ 매2억9천
6. 나주시 세지면 등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생산지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신평면 등정리 담 7,966㎡ 4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9억원
4. 나주시 신평면 산재리 전 3,300㎡ 2차선도로변근교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신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변 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6. 나주시 다도면 풍신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7.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8.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전 24,795㎡ 2차선도로변 교차로 생산지 지역 전일주택지 적합 매 18억원
9.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담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 2천만원
10.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 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정성군 심계면 합동저수지 대지 883㎡ 매도 1억
- 정성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 화순군 도곡면 드들간면 3694㎡ 전원주택 개발적합 5억1천5백
- 담양군 대덕면 입석리 993㎡, 599㎡, 665㎡ 평당 50만원

투자·매도·교환

- 정성군 심계면 사창리 주거지 임야 4701㎡ 매도 9천만원
- 동구 대인동 도로점 중심상업지 580㎡(175평) 12억2천
- 광안구 동산동 그린벨트 담 2638㎡(798평) 은행 8천 매도 1억2천
- 정읍시 시가지 2중 주거지 428㎡ 원룸, 디세대 적합 1억6천
- 나주시 신평면 9053공공개발·교환 가능 은행 8억 매도 28억
- 담양군 무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3억6500
- 담양군 무정면 매립된 땅 3031㎡ 주택 등 적합 2억4천
- 광안구 신창동 자연녹지 770㎡ 교통중요 4억2천
- 무안군 청계면 5000㎡ 농장 등 적합, 전원생활도 좋음 7500만원
- 담양읍 터미널부근 담 4501㎡ 투자에 좋음 7억6천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430㎡ 차량통행 1억3천
- 제주시 강정해군기지부근 3891㎡ 경관최고 건물과 교환 26억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운전면허시험장 요양시설 등 적합 8억
- 북구 금곡동 그린벨트 담 2843㎡ 개인용장 등 적합 6000만원

상가건물

- 모델 중흥동 대지 184㎡ 건물 65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2천
- 월산동 4층 상가건물 대지 160㎡ 건물 418㎡ 5억
- 동구 대의동 대로점 대지 487㎡ 건평 1948㎡ 19억8천
- 내방동 원룸 대지 144㎡ 건물 370㎡ 전세 6천에 270 매도 4억
- 백운로터미 부근 3층 상가주택 대지 126㎡ 건물 199㎡ 3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인집 매도 6억7700
- 월산 파출소서 충정로 방향 80m 2층 건물 땅 132㎡ 건물 147㎡ 1억8천

주택

- 월산동 소빙도로 대지 109㎡ 주택 60㎡ 금매 8200만원
- 농성초등학교인근 월산동 대지 112㎡ 2층주택 96㎡ 1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협의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너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